

“민주 화합 번영의 대한민국...” 노재헌씨 5·18민주묘지 참배

노태우 장남 2019년부터 8차례 오월 영령 기려 “부친 회고록 수정 요구, 개정판에 반영” 언급해

“오월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민주 화합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날까지 굶어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59)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2일 오전 11시40분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 참배했다.

노 원장은 2019년 8월23일 이후부터 이번까지 8차례에 걸쳐 5·18민주묘지를 방문, 오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이날 참배 이전 노 원장은 방명록에 ‘오월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민주 화합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날까지 굶어 살려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적은 뒤 추모탑 앞에서 분향과 묵념을 이어갔다.

이후 노 원장은 가장 먼저 행방불명자 묘역을 찾아 7개의 묘 앞에서 차례로 헌화·묵념했고, 1·2묘역을 찾아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의 오빠인 김

형영 열사와 이명자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의 남편인 정동년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의 묘 앞에서 각각 참배했다.

김형영 열사의 묘 앞에서 그는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잘 굶어 살려주시길 바랍니다”고 읊조렸다.

참배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아버지의 회고록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출간된 ‘노태우 회고록’에는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사태’로 표현된 것은 물론, ‘5·18운동은 유언비어가 진법이다.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 씨를 말리려왔다’는 유언비어를 듣고 시민들이 무기를 습격했다’는 등의 왜곡된 내용이 포함돼 수차례 개정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노 원장은 지난해 광주를 방문했을 당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씨가 2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들을 추모하고 있다. /정은정 기자

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현재까지 지지 않고 있어 그간의 참배 행보가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 원장은 “회고록이 오래전 절판된 상황이라 수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신 ‘노태우 기념재단’에서 회고록 개정판을 출판해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 한다”고 밝혔다. 출간 시기에 대한 말을 아꼈다. /정은정 기자

고(故)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와의 만남에 대해선 “아직은 계획된 바 없다”면서도 “가능하다면 함께 만나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후 노 원장은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하는 것으로 광주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은정 기자

2024 광주인권상 ‘수간티니’ 스리랑카 인권활동가

여성 인권 향상 투쟁...오는 18일 시상식

2024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스리랑카 여성 인권활동가 ‘수간티니 마티야 무탄 탐가라사’(55·여·사진·이하 수간티니)가 선정됐다.

5·18기념재단과 2024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2일 “스리랑카 타밀 일람 여성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그녀의 노력이 5·18 정신과 맞닿아 있어 수간티니를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정했다”고 밝혔다.

타밀어로 ‘존엄성을 향한 멈추지 않는 투쟁’을 의미하는 ‘아마라’ 단체의 대표인 수간티니는 스리랑카 정부군 보안부대의 수많은 탄압과 고통을 이겨내고 전쟁 피해 여성들의 인권 신장과 권익 향상을 위해 투쟁해 왔다.

영어 교사였던 그는 스리랑카 군에 의해 남편을 잃게 되자 인권 침해를 당한 여성을 대변해 정부군에 비폭력 시위를 주도했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일어난 전쟁



으로 타밀 일람주 전체가 스리랑카 보안부대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 수간티니는 인권 역량 강화 교육·카스트 제도 폐지가 정폭력 반대 등 활동을 하다가 약령 높은 판파이마두 수용소에 불법으로 구금돼 고문을 당하며 갇혀 있던 대부분을 눈을 가린 채로 지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구금에서 풀려난 수간티니는 자프나 지역에 정착해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아마라’는 단체를 설립했다”며 “올해 광주인권상 시상식 스리랑카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신장에 미약하게나마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주인권상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후 6시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다. 앞서 수간티니는 16일 수상자 기자회견 및 오월어머니와의 만남을 갖고 17일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가할 예정이다. /주성학 기자



2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동 인근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새까만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이날 화재로 일대 교통 통제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었다. /김애리 기자

“반소 고려” 중앙공원 1지구 주주권 공방 과열 양상

빛고을SPC, 케이앤지스틸과 항소심서 밝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관련 소송에서 롯데건설의 인수 참가로 우빈산업이 제3자가 됐으나 탈퇴하지 않은 가운데 또 다른 피고인 빛고을SPC가 케이앤지스틸을 상대로 ‘반소’까지 고민 중이라고 밝혀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2일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피고 우빈산업·빛고을SPC가 제기한 항소심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터 1심에서 보조 참가자였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 대신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됐다.

케이앤지스틸은 1심에서 주주권이 확인됐다는 주장을 펼쳤고, 롯데건설은 재판의 당사자가 된 만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실상 제3자가 된 우빈산업은 탈퇴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또 다른 피고 빛고을SPC는 “이 사건의 주식이 우빈산업으로 인정돼야만 항

후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며 “반소”를 제기할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소는 같은 재판의 피고가 원고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청구될 경우 동일 재판부가 담당한다.

재판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롯데건설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을 오는 7월11일에 열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 한양과 우빈산업간 소송에서 한양은 청구 취지를 변경하겠다고 밝혀 1심 때와는 재판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안재영 기자

광주 남구 지하철 2호선 공사장 불...출근길 정체

출근길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 교통 체증이 빚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2일 광주 남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2분께 남구 봉선동 백운광장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중 제4공

구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

공사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 전체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화재 발생 1시간2분여만인 오전 9시44분께 완료했다.

화재는 공사현장 지상에서 복공판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씨가 가연성 석유류 제품인 환기구 방수 자재에 옮겨붙어 번졌으며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1명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주성학 기자

檢, 수사정보 유출 퇴직 경무관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사건 브로커’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사기범의 수사 정보를 흘린 퇴직 경무관에 대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퇴직 경무관 장모(60)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장씨는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의 청탁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가상자산 투자사기범 탁모(45)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대

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경찰 고위 간부였음에도 공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성씨의 범행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안재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내 *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와 함께 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 👤 **대 상**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 **정부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 **양육공백기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위기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서비스 유형(기준중위소득)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 라형(150%초과)
시간제서비스	연 96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서비스	월80시간~200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대표번호 1577-2514

가까운 센터로 자동연결

홈페이지

<https://gj-idolbom.or.kr>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Gwangju Metropolitan City Child care Wide Area Support Center